

## 휘발유, 서울지역 판매가격 2040원 돌파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정유4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이 전주보다 리터당 52.3원 오른 949.7원을 기록했다고 9월16일 발표했다.

자동차용 경유 공급가격도 51.5원 오른 973.6원으로 6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휘발유 및 경유 공급가격 모두 주간 공급가격 공개(2008년 5월 첫째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7.0원 오른 1942.4원을 기록해 2주 연속 상승했다.

석유제품 주유소 판매가격 변화

(단위: 원/ℓ)

구 분	2010	2011/7	8/4	8/5	9/1	9/2	등 락
보통 휘발유	1,710.4	1,934.7	1,938.8	1,933.9	1,935.3	1,942.4	↑7.0
자동차경유	1,502.8	1,754.4	1,749.6	1,742.5	1,740.9	1,744.5	↑3.5
실내 등유	1,076.0	1,351.1	1,345.3	1,341.8	1,339.4	1,338.5	↓0.9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5원 상승한 1744.5원을 기록해 6주 만에 반등했고, 실내등유는 0.9원 하락해 1338.5원을 나타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2041.6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주(1969.1원), 인천(1958.0원) 등이 비교적 비쌌으며 경북(1920.4원), 광주(1922.6원), 울산(1923.1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최근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최근 강세를 보이는 국내 소비자가격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반영되는 다음 주부터 일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11/09/19>